**삼상1211 Note**

**판결관 베단에 관한 호크마 주석**

성 경: [삼상12:11]주제1: [사울의 왕직 갱신]주제2: [이스라엘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]

▶ 베단(\*) –

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이 사사(士師)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이견이 있다.

왜냐하면 '베단'(Be-dan)이라는 이름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.

따라서 그가 (1)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활약하기는 했지만, 단지 그 이름이 생략된 유명한 사람일 것이라는 견해,

(2)대상 7:17에 이 이름이 마길의 후손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, 길르앗의 '야일'(삿 10:3)을 가리킨다는 견해,

(3)베단(Bedan)이란 이름을 압돈(Abdon)의 압축형으로 보고, 곧 사사 '압돈'(삿 12:13)을 가리킨다는 견해(Gesenius, Ewald),

(4)'베단'을 '벤-단'(단 자파의 아들)에 대한 표기로 보고, 곧 단 지파의 '삼손'(삿 13:2,24)을 가리킨다는 견해(Kimchi),

(5)'베단'(\*)을 '바락'(\*)에 대한 필사자의 오기(誤記)로 보고, 곧 이스라엘을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으로부터 구원한 사사 '바락'(Barak, 삿 4:6)으로 보는 견해(LXX, the Syriac, the Arabic) 등이 있다.

그런데 이들 사사들의 업적이나 전체 문맥, 그리고 문법적인 상황등을 고찰해 보면, 이들 견해 중 다섯번째의 견해대로 '베단'(Bedan)은 곧 사사 '바락'(Barak)을 가리키는 것같다(히 11:32).

즉 대부분의 학자들(Keil, Fay, Smith)은 사본 전승 과정상 필사자들이 그 단어의 유사성 때문에 '바락'(\*)을 '베단'(\*)으로 잘못 베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(Keil & Delitzsch, Vol. II-ii.p.117-118;Lange,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).

한편 이 사사(士師)는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(9절;4:4-24;히 11:32).

저는 (4)의 견해에 마음이 가네요

삼손이 사사기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언급된 비중있는 판결관이고,

또한 엘리와 사무엘 직전의 판결관이었기 때문입니다.